

TV 뉴스 번역에서의 삭제 양상 분석 - KBS 월드뉴스를 중심으로

정 나 영
(이화여대)

1. 서론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출범 1주년을 맞이하고, 지상파의 심야방송이 허용되면서 TV 뉴스 공급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종편이 적자액을 만회하고자 위협이 큰 드라마 편성을 줄이고 제작비 부담이 적은 보도 교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인터넷 매체에 역전될 것이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앞으로도 TV 뉴스의 영향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TV 뉴스의 발전과 더불어 TV를 통한 국제 뉴스의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KBS에서는 930뉴스와 정오뉴스의 한 부분을 '월드뉴스'에 할애하고 있고, 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뉴스'도 따로 편성하고 있다. MBC는 주간 방송으로 '지구촌 리포트'를, YTN 역시 '토픽 월드'와 '세계 세계인'을 다른 뉴스와 분리해 방송하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국제 뉴스는 기자나 특파원의 취재를 통해 작성된 리포트¹⁾가 아닌 경우, 외신 번역 작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문화권별로 시각과 방점이 다르고 리포트 작성 관습도 다른 만큼, 뉴스 번역에서는 협의의 번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번역 전략이 사용된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뉴스 번역에 ‘편역(trans-editing)’의 개념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뉴스 편역이란 독자 혹은 번역문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 번역자가 일정 정도 원문의 내용과 형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원어 뉴스를 번역과 편집의 수단을 사용해 번역, 가공, 종합하여 역어로 표현해 내는 뉴스의 번역 방법이다(강수정 2011: 5 재인용). 이 과정에서 선택, 삭제, 첨가, 요약, 결합, 종합, 재구성 등이 주된 전략으로 사용된다(Chen 2011: 121). 본 논문은 KBS 월드뉴스를 중심으로 TV 뉴스 번역에서 삭제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다양한 전략 중 삭제 전략을 분석한 이유는 외신 리포트에 비해 길이가 현저히 짧아지는 KBS 월드뉴스의 특성상 어떤 내용을 삭제할지를 결정하는 작업이 뉴스 번역의 시작점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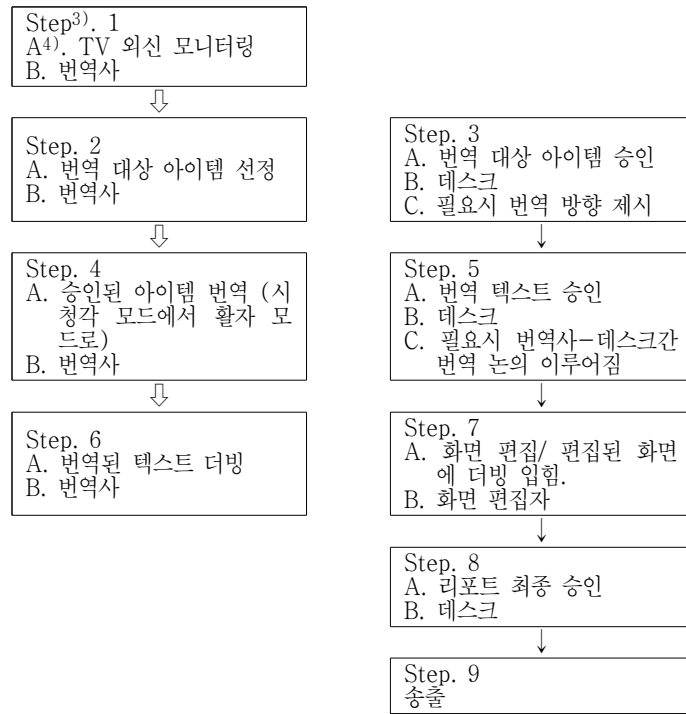
KBS 월드뉴스 제작은 뉴스 번역사가 CNN, ABC 등의 TV 뉴스 외신을 보고 번역할 아이টে임을 선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선정된 아이টে임을 데스크²⁾가 승인 하면 번역사는 번역 작업에 착수한다. 여기서의 번역은 일반적인 문자 텍스트에서 문자 텍스트로의 번역이 아니라, 시청각 텍스트에서 문자 텍스트로의 번역이다. 즉, 해외 TV 뉴스를 보고 번역사가 한국어 문자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이후, 문자 텍스트로 변환된 한국어 리포트를 번역사가 육성으로 녹음하고, 이후 녹음된 음성이 편집된 화면에 입혀져 방송으로 송출된다. 결과물만 두고 볼 때, 시청각 매체에서 시청각 매체로 전환돼 통역의 형식을 취하지만, 중간 단계에서 문자 텍스트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번역이 개입하는 독특한 구조이다. 또한, TV 뉴스 번역에는 화면이 주는 시각적 정보와 인터뷰 삽입 등의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는 만큼 인쇄매체와는 다른 독자적인 번역 전략이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편역의 관점에서 TV 뉴스 번역에서의 정

1) 앵커나 뉴스 캐스터가 읽는 기사인 스트레이트와는 다른 개념으로 앵커나 캐스터가 읽지 않고 취재 기자가 작성한 원고에 맞춰 화면까지 편집해 바로 송출할 수 있도록 만든 방송물을 ‘리포트’라고 한다 (김구철 1998).

2) 신문사나 방송국의 편집부에서 기사의 취재와 편집을 지휘하는 직위. 또는 그런 사람.

보 삭제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표1〉 TV 뉴스 번역 업무 흐름도



<번역사 업무 흐름>

<기타 뉴스 생산 주체 업무 흐름>

본 논문의 주제인 ‘삭제’에 초점을 맞춰 업무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단 데스크로부터 번역 대상 아이템이 승인되면 어떠한 내용을 삭제할지는 원문 이해력이 있는 번역사가 결정한다. 단, 번역 대상 아이템 승인 과정에서 데스크가 리포트의 줄거리를 간략히 들은 후,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삭제해야 할 내용을 번역 작업 착수 전에 미리 지시하기도 한다. 이후, 번역된 원고를 최종 승인하는 단계에서 데스크는 ST와의 비교 없이

3) 전체 업무 흐름은 Step을 따라가되, 업무 주체(번역사/기타 뉴스 생산 주체)별 업무 흐름은 화살표 모양대로 따라간다.

4) A: 업무 설명/ B: 업무 주체/ C: 기타

TT를 읽은 후 논리적 결함 유무와 가독성 등을 판단한다. 데스크가 TT의 품질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번역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부적절한 삭제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최종 원고에 수정 반영한다.

2. 이론적 배경

스테팅(1989)은 편집(editing)과 번역(translation) 사이의 불분명한 영역을 가리키는 새로운 용어로 “번역(Trans-editing)”의 개념을 제안했으며, TV 번역이나 저널리즘, 그리고 기업 내 브로셔나 홍보 자료 등 다양한 번역에 번역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쇄 매체 뉴스를 중심으로 뉴스 번역에 번역의 개념을 도입한 많은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강수정(2011)은 정보 전환의 폭이 크고 SL-TL간 장르 관습이 상이한 뉴스번역에 번역의 개념을 도입하지는 중국의 뉴스 번역관을 적극 수용, 중국 뉴스매체에서 한국 뉴스를 어떻게 번역 보도하고 있는지 ‘삭제-확대-조정’의 전략으로 유형화시키고 관찰했다. 또, 삭제, 확대는 정치적 입장에 따른 번역 전략인 경우가 많지만, 조정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번역 전략으로 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콘웨이(Conway 2010)는 뉴스 번역의 주체를 현지에서 인터뷰 대상자를 제외하고 기자와의 의사소통을 돕는 ‘현지 담당자’와 목격자의 증언이나 번역된 공식 문서를 종합해 리포트로 탄생시키는 ‘기자,’ 그리고 리포트를 최종 점검하는 ‘편집자’의 3 부류로 나누고, 편집자와 기자가 함께 명확성, 관련성, 장르 관습과의 합치성 등의 측면에서 뉴스를 최종 조정하는 ‘번역’ 업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첸(Chen 2001)은 뉴스 번역은 목표 독자의 필요와 목표 신문의 논조에 맞게 선택, 삭제, 첨가, 요약, 결합, 종합, 재구성 등의 방법을 통해 원천 텍스트를 재형상화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뉴스 번역 과정에서 원천 텍스트의 사실 관계가 왜곡되는 안 되지만, 의사소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원천 텍스트가 목표 독자와 목표 신문의 관점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역할을 뉴스 번역사가 행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엘사(Bielsa 2007)는 뉴스 번역이 리포트가 점검, 교

정, 수정, 윤색되는 편집(editing)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뉴스 번역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뉴스 번역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뉴스 번역에 번역 이외에 다른 형태가 존재함을 인정하게 된다며 뉴스 번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번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실제 파일럿 텍스트 분석에서도 단어나 구문에서부터 문단에 걸쳐 나타나는 광범위한 삭제 및 첨가 전략, 그리고 ST 정보 흐름의 구조를 완전히 탈피한 TT의 재창조 등이 확인됐고, 뉴스 번역에 데스크, 번역사, 화면 편집자 등 다양한 주체가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고전적인 번역 이상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바, 본 논문에서도 편집과 고전적인 번역의 개념을 양 극단으로 한 스펙트럼의 일부에 위치한 번역의 지점에서 뉴스 번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뉴스 번역의 정의에 대한 논의 중 또 다른 흐름은 뉴스 번역을 현지화(localizing)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움직임이다. 실제로, 오렌고(Orengo 2009)는 뉴스가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현상과 뉴스 번역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뉴스 번역에서의 ST-TT간 변이는 변이를 한 부분으로 하는 광의의 개념에 수렴되는 바, 뉴스 번역에 현지화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펴(Pym 2004) 역시 지역 언론을 통해 읽는 해외 뉴스는 고전적인 번역 정의 이상의 변형이 가해진 외국어 텍스트의 현지화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뉴스 번역 연구에서는 문장 단위의 직역 대 의역, 충실성 대 가독성 등의 이항 대립적 시각이 주축을 이루는 협의의 번역 개념을 폐기해야 한다는 데 학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번역’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더라도, 비엘사의 주장대로 뉴스 번역이 번역의 형식을 띠는 대전제 하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창수(2004)는 뉴스 번역 과정에서 정보가 재구조화되는 것에 착안, 리드5)에서 빼낸 정보를 번역사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연구했고, 이미경(2011)도 뉴스 번역의 주요 전략으로 언급되는 정보 추가, 교체, 생략, 대체 등의 전략을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했다.

뉴스 번역의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로 간주되는 삭제와 관련해서는 차이(Tsai 2005)가 번역된 원고에 입힐 적절한 화면이 없어서 번역사가 번역 원고의

5) 신문 뉴스 기사에서 본문에 앞서 그 요점을 간추려서 쓴 짧은 문장.

상당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번역 텍스트와 화면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화면이 우선시된다는 방송 매체의 격률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3분이 넘는 CNN 리포트를 타이완에서는 1분 이하로 번역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그 과정에서 목표 시청자의 필요에 맞게 단어, 혹은 문단을 통째로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2011)은 뉴스 번역에서는 번역사가 TT 독자와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며, 한국어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위해 중복적이고 부수적인 정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음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강수정(2011) 역시 한중 뉴스 번역에서 역어권에 불필요한 정보, 역어권 보도 관습에 맞는 않는 정보,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입장차이가 있는 정보가 삭제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TV 뉴스에 국한한 번역 전략 연구는 인쇄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지연을 중심으로 인쇄 매체 뉴스와의 차별화되는 TV 뉴스 번역 전략에 대한 연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지연(2008)은 TV 뉴스 번역에 초점을 맞춰 소리와 이미지가 동반되는 ST의 번역이 활자화된 문자 텍스트와의 번역 전략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연구하고, 그 차이점으로 번역사의 배경지식과 이해력, 그리고 전달력 등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TV 영어 뉴스와 한국어 뉴스 작성 규범을 분석하고, 그 규범과 실제 번역 현상 간의 괴리를 코퍼스 분석을 통해 고찰했다(이지연 2007). 해외에서는 차이(Tsai 2005)가 방송국 내부 관찰을 통해 TV 국제 뉴스 번역 과정을 자세히 기술한 바 있다.

번역의 관점에서 볼 때 TV 뉴스 번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화면이라는 시각적 요소의 개입, 구어체, ST에 포함된 인터뷰, TT 리포트의 시간 제약 등이 있다. TV 뉴스에서는 화면과 번역된 텍스트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고, 최종으로 시청각 모드로 송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구어체로 번역해야 하며, ST의 인터뷰는 선택적으로 취해 자막으로 제작해야 하고,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의 길이 변화도 고려해야 하는 등 인쇄 매체와는 구별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변수로 떠오른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과 뉴스 번역의 주된 전략인 정보의 삭제, 첨가, 재구성, 요약을 연계해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인쇄 매체, 인터넷 매체 등 일반적인 뉴스 번역이라는 큰 틀 내에서 번역의 전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ST에 비해 리포트 길이가 현저히 줄어드는 KBS 월드뉴스를 중심으로 TV 뉴스 번역의 중요한 특징인 시간의 제약을 연구의 대전제로 삼아 정보의 삭제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3.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TV 뉴스 번역에서 원천 텍스트의 어떤 정보가 목표 텍스트에서 삭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KBS 월드뉴스 10개를 추출해 ST인 CNN 리포트의 스크립트를 확보했다. CNN 스크립트를 확보한 경로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해당 리포트의 스크립트가 있을 경우 간단한 검토를 통해 활용하고, 없을 경우 직접 CNN 리포트를 보고 직접 전사했다. 10쌍 중 2012년도 6월 중 방송된 리포트에서 무작위로 6쌍, 그리고 2008년도 12월에서 2009년도 1월 사이에 방송된 리포트 중에서 무작위로 4쌍을 추출하였다. 과거의 자료도 함께 사용한 이유는 데스크의 성향에 따라 삭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데스크 하에서 번역했던 시기인 4년 전과 현재의 자료를 모두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

KBS 월드뉴스팀에서는 원천 텍스트로 삼은 외신 리포트의 길이에 상관없이 50초에서 1분 10초 이내의 리포트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외신 리포트의 길이는 1분에서부터 5분이 넘는 텍스트까지 다양하므로 번역 과정에서 정보 삭제는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텍스트 분석 대상으로 삼은 10쌍의 ST-TT를 분석한 결과, ST인 CNN의 평균 리포트 길이는 131.4초, 이를 번역한 KBS 월드뉴스 리포트 평균 길이는 57.9초로 평균 49.7%의 길이 보존율을 보였다(표1 참조).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번역 과정에서 자주 삭제되는 내용을 4가지로 분류했다.

〈표2〉 KBS 월드뉴스의 ST-TT 길이 비교

	ST 길이(단위:초)	TT 길이(단위:초)	길이 보존율(단위: %)
텍스트 1	180	62	34.44444444
텍스트 2	136	58	42.64705882
텍스트 3	156	58	37.17948718
텍스트 4	159	67	42.13836478
텍스트 5	71	62	87.32394366
텍스트 6	80	59	73.75
텍스트 7	81	54	66.66666667
텍스트 8	121	53	43.80165289
텍스트 9	170	58	34.11764706
텍스트 10	160	56	35
평균	131.4	58.7	49.70692655

또한, 현직 KBS TV 뉴스 번역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해 실제 텍스트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삭제 양상과 번역사들이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삭제 전략이 일치하는지 분석했다. 인터뷰에 응한 KBS 월드뉴스 번역사 2명은 국제 뉴스 번역 경력이 각각 30년, 10년에 이르는 뉴스 번역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면접 기법은 준비한 질문지 형식을 따라가되 상황에 따라 면접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반구조화 형식을 취했다.

4. 텍스트 분석 결과

4.1. 말장난이나 농담의 삭제

일반적으로 영미권 TV 뉴스의 경우 다소 경직된 분위기의 한국 TV 뉴스에 비해 비격식적으로 진행되는 편이다. 실제로 영어 뉴스를 한국어 뉴스로 번역할 때 격식성과 정중성이 현저히 높아지며, 한국 TV 뉴스 언어 지침에는 ‘품위 있는 경어체’가 중요한 가치로 언급되는 반면 영어 TV 뉴스 언어 지침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연 2007). 한국 기자가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데 반해 영미권 기자들은 다양한 방식을 차용해 사실을 전달한다. 그 중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말장난이나 농담을 의도적으로 리포트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 뉴스보도와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언어의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을 주요 덕목으로 꼽는데, 공정성은 특정 집단이나 이해 당사자들을 차별하는 언어 사용의 자제를, 객관성은 근거에 입각해 특정 사건이나 이슈를 평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확성은 사실 그대로 왜곡 없이 누구나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의미한다(김정기 2001). 특히, 객관성을 해치는 언어로는 감정의 절제를 잃은 극단적인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 주관적인 평가나 견해가 담긴 표현, 지나치게 수사학적인 표현 등이 있는데(ibid. 90), 영미권 TV 뉴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장난이나 농담은 특정 사안에 대한 기자의 가벼운 평가나 수사학적인 묘사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기자의 말장난이나 농담은 한국 뉴스 언어 규범에 어긋나는 요소로 간주돼 KBS 월드뉴스로 번역될 때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예1>

But information may not be what these people are looking for when they see Paige. “I was looking at her eyes. I didn’t listen to what she said. That’s usually the case.”

<예1>은 2012년 6월 KBS 월드뉴스에서 방영된 “공항에 실물 크기의 홀로그램 안내원 등장”이라는 리포트의 ST에 포함된 문장이다. 이 리포트는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홀로그램 안내원이 도입됐다는 내용인데, <예1>은 홀로그램 안내원인 페이지의 미모가 매우 뛰어나 공항 이용객들이 공항 정보에 대해 묻는 것보다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데 더 신경을 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KBS 월드뉴스에서는 완전히 삭제됐다. 덜레스 국제공항에 홀로그램 안내원이 도입됐다는 리포트 주제를 전달하는데 필수적 내용이 아닌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기자의 농담식 발언으로 간주된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객관적 뉴스 언어 사용 규범에도 어긋난다. 특히, 여성의 미모를 평가하는 듯한 기자의 농담은 영미권 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식성이 높은

한국 TV 뉴스에서는 용인되기 힘들다. 따라서 번역 과정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예2>

“Mama’s boy? Forget it. Daddies rule in Daniel Gurr’s world.”

이 같은 사례는 다른 리포트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됐다. <예2>는 KBS 월드 뉴스에서 2008년 12월에 방영된 “미혼남성, 대리모 통한 출산 증가”라는 리포트의 ST에 포함된 문장이다. 이 리포트는 결혼을 원치 않는 미혼 남성들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지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예2>를 직역하면 “마마보이는 이제 잊으세요. 대니엘 구르의 세상은 아빠가 지배합니다”가 될 수 있다. ‘대니엘 구르’는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선택한 미혼 남성으로 리포트에 등장한다. 기자는 이러한 남성들을 통칭하기 위해 “Daniel Gurr’s world”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마마보이라는 개념을 의도적으로 끌고 와 엄마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양육 개념이 아빠 중심으로 바뀐 현상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즉, 리포트를 재미있게 구성하기 위한 기자의 말장난인 것이다. 또한, ‘Daddies’와 ‘Daniel Gurr’를 한 문장에 배치시킴으로써 자음 ‘D’의 반복적 사용을 통한 운율 효과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적 효과는 번역으로 구현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KBS 월드뉴스에서는 완전히 삭제됐다.

<예3>

There’s been an enduring love affair between the museum and its feline defenders... (중략)...The love affairs between the museum and its cats still has some very good days ahead.

2012년 7월 KBS 월드뉴스에서 방영된 “취로부터 예술품 보호하는 박물관 고양이”라는 리포트의 ST에도 기자의 말장난이 등장한다. 이 리포트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고양이를 키워 미술관 내 쥐를 쫓아내고 있다는 내용이다. <예3>의 두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자는 쥐를 쫓아주는 고양이와 미술관이 열애 중이라는 다소 수사학적인 말장난을 시도함과 동시에 단순히 cats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feline defenders, 즉, ‘고양이 방어자’라는 말장난식의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목

표 텍스트인 KBS 월드뉴스에서는 완전히 삭제됐다. 수사학적인 기자의 말장난은 뉴스 언어 규범인 객관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효과의 증가 측면에서 보아도, 수사학적인 표현과 말장난은 번역을 한다고 해도 문화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CNN 시청자와 KBS 시청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구현하기 힘들다.

4.2. 한국 시청자들에게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

미디어가 무정형화 된 사건들을 취사선택하고 그 선택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하게 되면서 뉴스는 미디어가 제시한 틀에 의해 선택되고 특성화 되어 의미를 갖게 되는 사회적 구성물이 된다(강수정 2008: 3). KBS 월드 뉴스 역시 외신을 통해 입수한 다양한 리포트를 한정적으로 취사선택해 번역하고, 뉴스 번역사가 번역을 통해 해당 리포트에 특성을 부여하면서, 한국 내에서 의미있는 리포트로 재탄생한다. 강수정의 주장처럼 새로운 리포트가 목표 문화에서 의미있는 사회적 구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 시청자들에게 관련성이 높은 리포트인지 여부를 번역 아이템 취사선택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인들과 관련성이 적은 외신 리포트로 판단되는 경우, 애당초 번역 대상 아이템으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CNN에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에 관한 리포트를 방영했을 경우, 미국에서는 인접국의 사건이므로 비중 있는 리포트로 취급하지만, 해당 사건이 한국 내에서 갖는 함의는 크지 않으므로 한국 방송사 보도국에서는 번역 대상 아이템으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번역을 위한 텍스트로 선택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도 뉴스는 TT 독자에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미경, 2011:389). 그러나 일단 번역을 위한 텍스트로 선택되면, 뉴스 번역사들은 다양한 번역 전략을 사용해 한국 시청자들과의 관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가 한국 시청자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전략이다.

<예4>

Properties sell for a million dollars an acre. The Bush's new neighbors include Sen Kay Bailey Hutchison, Mark Cuban, Ross Perot. This is a majestic cocoon of wealth.

<예4>는 2008년 12월에 KBS 월드뉴스에서 부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기거할 새 집을 텍사스에 마련했다는 리포트의 ST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한국인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로 취급돼 KBS 월드뉴스에서는 완전히 삭제됐다. 부시 대통령이 퇴임 이후 이웃으로 맞게 될 케이 베일리 러치슨 상원의원과 영화 제작자인 마크 큐반, 그리고 텍사스의 부호인 로스 페로는 번역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물들이 미국인 시청자들에게 갖는 함의가 한국인 시청자들에게는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필요한 정보가 되어 버린다. 번역했을 경우 오히려 한국인 시청자들에게는 의미 없는 이름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뉴스 번역사는 한국인 시청자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 번역 과정에서 삭제했다.

<예5>

Reddish and brown in color, they are about the size of Lincoln's head on a penny.

<예 5>는 2012년 6월에 방영된 “조심! 여름 휴가철 호텔 침실 빈대”라는 KBS 월드뉴스 리포트의 ST에 포함된 문장이다. 빈대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이 문장 중에서 번역사는 “reddish and brown in color”라는 구문은 삭제하지 않고 “붉은 갈색을 띠는 벌레”로 번역했지만 “they are about the size of Lincoln's head on a penny”라는 문장은 아예 번역 과정에서 삭제했다. “10센트짜리 동전에 그려진 링컨의 머리모양의 크기”라고 그대로 번역할 경우 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정보, 즉 불필요한 정보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 TV 뉴스 번역사들은 10센트짜리 동전에 그려진 링컨의 머리 크기를 명시적으로 수치화해서 번역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데, KBS 월드뉴스는 ST-TT간 시간 축약이 큰 만큼 삭제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예6>

The American hotel and lodging association says the presence of bed bugs has dropped in the US. But if you do find them or suspect they may be present, complain to management immediately.

<예6>는 <예5>와 동일 리포트의 ST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KBS

월드뉴스에서는 “미국 숙박 협회에서는 호텔에 빈대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즉각 담당자에게 알리라고 조언합니다”라고 번역돼, “the presence of bed bugs has dropped in the US”가 삭제된 현상도 발견됐다. ST 리포트는 당시 호텔 침대의 빈대를 조심해야 한다는 주제로 당시 휴가철에 CNN 미국 국내 방송으로 송출됐다. 이 리포트를 KBS에서 번역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한국인 시청자들에게도 유효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미국과 동일하게 휴가철을 맞이한 한국인 시청자들에게도 한국 호텔 내의 빈대를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번역된 리포트를 시청하는 한국인들은 한국 호텔의 상황을 상정해서 리포트를 이해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인 시청자들은 한국 호텔의 빈대수에 관심이 있을 것인데, ST에 포함된 미국 호텔의 빈대수와 관련된 정보는 한국 상황을 상정하는 한국인 시청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정보로 다가온다. 따라서 번역사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한국인 시청자들에게 유효한 부분만 번역했다.

<예7>

Several states either ban or severely restrict adoption by gay individuals and couples.

앞에서 언급했던 “미혼남성, 대리모 통한 출산 증가”라는 리포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됐다. 기사는 남녀의 결합을 통한 일반적인 결혼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혼 남성들이 아이를 입양하기가 쉽지 않아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선호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예7>의 문장을 말한다. 그러나 번역사는 “일부 주(州)에서는 게이나 게이 부부의 입양을 금지, 혹은 제한한다”는 내용의 해당 문장을 번역 과정에서 목표 텍스트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미국의 일부 주와는 달리 한국은 게이 커플에게 합법적 부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게이 커플이 아이를 입양할 수 없는 미국의 상황은 한국인 시청자들에게는 당연한 정보로 다가온다. 즉, 기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한국인 시청자들이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불필요한 정보인 것이다. 오히려, 대리모 출산을 선택하는 미혼남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리포트의 주제와는 무관한 잉여정보로 느껴질 수 있는 만큼 TT에서는 완전히 삭제됐다.

앞서 언급한 이미경(2011)과 강수정(2011)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쇄

매체 뉴스와 중국어권 뉴스 번역에서도 한국인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는 빈번히 삭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TV 뉴스에까지 확대해, 매체와 언어쌍에 관계없이 뉴스 번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4.3. 화면으로 이해 가능한 내용의 삭제

TV 뉴스가 인쇄매체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정보 전달에서 화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TV 뉴스 기자들은 화면이 주는 시각적 정보를 고려해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TV 뉴스를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KBS 월드뉴스처럼 번역을 통해 긴 ST 리포트를 1분 내외의 리포트로 압축해야 하는 경우, 화면 자체로도 이해 가능한 정보는 굳이 리포트 내용으로 따로 번역하지 않는 경향을 드러냈다.

<예8>

Smoke clouds hover over the Damascus skyline. Checkpoints block every street and sand bags line street corners.

<예8>은 2012년 8월 KBS 월드뉴스에 방영된 “시리아 반군들 잔인한 고문 받아”라는 리포트의 ST에 나오는 문장이다. 원천 텍스트인 CNN에서는 유혈사태로 얼룩진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분위기를 묘사하기 위해 <예8>의 문장을 리포트로 내보내고 동시에 다마스쿠스 하늘을 뒤덮고 있는 연기구름과 길마다 촘촘히 들어서 있는 검문소, 그리고 모래 포대의 화면을 내보냈다. 기자의 입을 통한 상황 묘사에 시각적 정보를 더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극대화시킨 전략이다. 그러나 KBS 월드뉴스 리포트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문장이 완전히 삭제됐다. 시간 제한을 고려해 다마스쿠스의 분위기에 대한 설명은 화면이 주는 시각적 정보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9>

Amid the tall citrus trees of Okinawa, Japan, Tusne Ganaha is busy picking fruit, as she does eight hours every day. Age 90, climbing tree after tree, hauling down bags of fruit, and doesn't remember a day she's

ever been sick in her 70 years on this farm.

<예9>는 2008년 12월에 방영된 “오키나와 장수 비결은 건강한 생활습관”이라는 리포트의 ST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원천 텍스트인 CNN에서 기자는 오키나와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평생 노동하는 습관을 꼽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90세 노인이 실제 노동하는 장면을 <예9>와 같이 생생하게 묘사한다. 반면 KBS 월드뉴스에서는 “지난 70년간 과수원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는 쭈니 가나하 씨. 최근 구순을 맞았지만 여전히 매일 8시간 노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로 번역했다. 해당 리포트의 화면에는 거대한 감귤나무가 들어선 풍경과 쭈니 가나하 할아버지가 과일 포대를 끌고 있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어, “Amid the tall citrus trees of Okinawa, Japan, Tusne Ganaha is busy picking fruit”와 “climbing tree after tree, hauling down bags of fruit”는 화면상으로도 이해 가능한 내용으로 판단, 번역 과정에서 삭제됐다.

<예10>

Doctor Ridwan Mia is Pippie’s reconstructive surgeon. He showed me the extent of her burns on arrival, images you may find upsetting.

비슷한 예로 2012년 6월에 방영된 “화상환자에 자기 피부 배양 시도”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살펴보자. 전신 80%에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남아공 최초로 자가 피부 배양술이 시도됐다는 내용이다. ST에서 환자의 담당의가 환자의 화상 정도를 보여주는 화면이 나오고 동시에 기자는 <예10>의 문장을 말한다. 그러나 KBS 월드뉴스에서는 화면만 내보내고 이 부분은 따로 번역하지 않았다. 화면에서 등장하는 의사는 명백히 환자의 담당의이고 담당의가 직접 환자의 화상 부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과, 화상 부위가 다소 불쾌할 수도 있다는 점은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시청자들이 화면만으로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4.4. 인터뷰

CNN 리포트와 KBS 월드뉴스는 길이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리포트에 포함돼 있는 인터뷰 개수도 상이하다. 분석한 10개의 CNN 텍스트에서는

리포트 한 개당 평균 4.8개의 인터뷰가 포함돼 있는 반면, KBS 월드뉴스에는 리포트 한 개당 평균 0.9개의 인터뷰가 포함돼 있었다. 또한, ST의 인터뷰를 TT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변환하지 않고 리포트 내용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발견됐다. 예를 들어, 2008년 12월 24일에 방영된 “英, 경기 침체로 소장품 판매 급증”이란 리포트의 경우, ST에서 구제 옷가게 주인이 “Where’s before may be somebody would decide to give away their clothes to charity, and now they are realizing that they can actually raise some cash through selling their vintage items”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인터뷰는 TT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번역되지 않고 “예전 같았으면 자선단체에 기부했을 오래된 옷까지도 이제는 돈을 받고 팔 정돕니다”라고 리포트 내용의 일부로 번역됐다. 분석한 10개의 텍스트 중 TT 리포트 내용의 일부로 흡수된 인터뷰는 총 3개 발견했는데, 이 수치까지 합산하면 ST의 인터뷰 중 평균 29.56%가 TT에 번역됐다 (표2 참고). 번역되지 않고 삭제된 나머지 70% 가량의 ST 인터뷰는 다음의 3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표3〉 인터뷰 개수 비교

	ST 인터뷰 개수 (A)	TT 인터뷰 개수 (B)	리포트 내용에 흡수된 인터뷰 개수 (C)	번역된 인터뷰 비율 $(B+C)/A * 100$ (단위: %)
텍스트 1	3	1	0	33.3333333
텍스트 2	7	1	0	14.2857143
텍스트 3	4	1	1	50
텍스트 4	7	1	1	28.5714286
텍스트 5	4	1	0	25
텍스트 6	0	0	0	0
텍스트 7	6	1	0	16.6666667
텍스트 8	2	1	1	100
텍스트 9	6	1	0	16.6666667
텍스트 10	9	1	0	11.1111111
평균	4.8	0.9	0.3	29.5634921

4.4.1. 4초 이하의 인터뷰

KBS 월드뉴스의 경우 리포트 내용은 번역사의 음성으로 송출되고, 리포트에 삽입된 인터뷰는 ST의 원음을 그대로 내보내는 대신 번역된 인터뷰 내용을 자막 처리한다. 즉, 시청자는 시청각적으로 리포트 내용을 따라가다가 인터뷰 부분에서만 활자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각적으로 입력되는 정보에 비해 활자 정보는 처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CNN에 포함된 극히 짧은 인터뷰를 TT에 번역할 경우, 시청자들이 활자 정보인 자막을 미처 처리하기 전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KBS 월드뉴스팀에서는 4초 이하의 짧은 인터뷰는 TT에 번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제 텍스트 분석 결과, ST 리포트 하나 당 4초 이하의 인터뷰는 평균 1.5개 포함돼, 하나의 리포트에 포함된 전체 인터뷰 개수의 약 28%를 차지했으며, 이 인터뷰는 TT에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고.)

<표 4> 4초 이하 인터뷰 비율

	ST 인터뷰 개수(A)	ST의 4초 이하 인터뷰 개수(B)	4초 이하 인터뷰 비율 (B/A *100, 단위 %)
텍스트 1	3	2	66.66666667
텍스트 2	7	2	28.57142857
텍스트 3	4	1	25
텍스트 4	7	3	42.85714286
텍스트 5	4	1	25
텍스트 6	0	0	0
텍스트 7	6	3	50
텍스트 8	2	0	0
텍스트 9	6	1	16.66666667
텍스트 10	9	2	22.22222222
평균	4.8	1.5	27.6984127

4.4.2. 리포트 흐름과 관련성이 낮은 인터뷰

<예11>

“No matter where he goes, he is not going to be met with adoring crowds. There are going to be just as many people sticking their fingers out the window at him when the motorcade drives by even in Dallas.”

리포트의 흐름과 관련성이 낮은 인터뷰도 TT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11>은 부시 대통령이 퇴임 후 텍사스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내용의 리포트에 포함된 인터뷰이다. 퇴임기 무렵 지지도가 하락한 부시 대통령은 어디에 가더라도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와 관련된 내용은 부시 대통령이 퇴임 이후의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리포트 주제와 연결고리가 희미하다. 길이가 긴 ST에서는 리포트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해당 인터뷰가 삽입됐지만, 길이 제한으로 인해 압축적으로 번역해야 하는 KBS 월드뉴스에서는 주제를 드러내는 데 불필요한 인터뷰로 판단돼 삭제된 것이다.

<예12>

“A lot of these families, the children have iPads. And some people don't know how to use them. I like to stay organized, I like to keep schedules. I send them out using word documents, Excel spreadsheets.”

다른 리포트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12>는 고소득 부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CNN 리포트에 삽입된 인터뷰인데, KBS 월드뉴스에서는 완전히 삭제됐다. 아이패드를 가진 아이들을 돌볼 때 문서나 엑셀 등을 활용했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인터뷰, 즉 아이패드를 활용한 근무 환경을 설명하는 인터뷰는 고소득을 올리는 부모가 많다는 주제를 드러내는 데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렇듯 주제와의 연결고리가 빈약하다면, 인터뷰를 취사 선택해 번역해야 하는 KBS 월드뉴스에서는 삭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4.3. 인터뷰 길이에 비해 정보성이 낮은 인터뷰

KBS 월드뉴스는 인터뷰를 포함한 전체 리포트 길이를 1분 10초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인터뷰 길이도 10초를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분 내외의 리포트에 10초가 넘는 긴 인터뷰가 포함될 경우 인터뷰가 차지하는 시간이 많아져 리포트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실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ST의 다양한 인터뷰 중 리포트의 주제에 부합하는 양질의 정보가 많이 포함된 인터뷰를 선택해 TT에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인터뷰 길이에 비해 포함하고 있는 정보량이 적은 인터뷰는 압축적으로 번역해야 하는 KBS 월드뉴스에서는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예13>

“It’s a tough question you know I wonder myself. I ask myself to make sure that I try to do thing that a mother would do, I don’t know because I don’t have estrogen, what a mother might do in certain circumstances but I try to be more tactile, touch more.”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선택하는 미혼남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CNN리포트에 포함된 인터뷰이다. 이 인터뷰는 KBS 월드뉴스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 인터뷰가 총 12초인데 반해, 12초간 전달하는 정보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엄마의 역할도 함께 한다는 내용을 “I wonder myself,” “I ask myself,” “I don’t have estrogen” 등의 표현을 삽입해 비경제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1분 내외의 KBS 월드뉴스에서는 포함하는 정보가 많지 않은 인터뷰에 12초를 할애할 수가 없다.

<예14>

“We wanted to have a BBQ, so my husband was outside, Pippie playing on the grass and as he was busy pouring some fire lighter gel on the piece of wood, the whole bottle just exploded, and with the backlash it hit pippie, who was playing on the grass about three meters away all over her little body.”

남아공 화상환자에 자기 피부 배양이 시도됐다는 CNN 리포트에 포함된 인

터뷰이다. 화상 환자의 엄마가 사고 현장을 묘사하는 총 10초짜리 인터뷰인데, KBS 월드뉴스에서는 삭제됐다. 이 리포트에는 이미 “정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다 불꽃이 튀어 발생한 사건”이라는 내용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이 이미 사고의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안다고 가정할 때, 인터뷰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상 정보성이 크지 않은 잉여 정보에 불과하다. 특히, 시간 제약이 큰 KBS 월드뉴스에서는 이미 리포트에서 언급된 정보를 다시 전달하기 위해 10초의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다.

5. TV 뉴스 번역사 심층 면접 분석

뉴스 번역사 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결과, 외신 뉴스를 KBS 월드뉴스로 번역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삭제하는 내용은 외신에서 나타나는 말장난이나 농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했을 경우 기사의 주제 전달에 기여하는 바가 없을뿐더러 한국 TV 뉴스 언어 규범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두 번째로 삭제 빈도가 높은 내용으로는 “음란, 잔인하거나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내용”을 꼽았다. 그러나 음란, 잔인하거나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외신 기사는 처음부터 번역 아이টে็ม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득이하게 번역 대상 아이টে็ม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만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번역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텍스트 분석에서는 음란, 잔인하거나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내용이 삭제되는 사례가 1건⁶⁾만 발견됐는데, 그 이유는 이미 번역 대상 아이টে็ม 선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검열이 있었

6) <예15>

We met 96 year old Toyohide Taira who loves to flirt with the ladies, who tells young people, “don’t get married, you’ll be sick of your spouse when you’re 90.”

CNN에서는 오키나와의 96세 할아버지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그가 여전히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일을 좋아하고, 90세가 되면 배우자에게 싫증이 날 수 있으니 결혼을 하지 말라는 조언을 한다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KBS 월드뉴스에서는 완전히 삭제됐다. 배우자에게 싫증이 난다는 등의 내용은 한국인의 유교적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기 때문에 풀이된다. 또한, 모자이크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알몸 화면이 나오는 외신을 그대로 번역한 후 방송해 시청자의 항의 전화를 받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한국인 시청자들은 TV 뉴스의 음란성에 대한 용인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신 뉴스를 번역할 때 한국과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취하며, 전략 중 하나로 한국인에게 불필요한 내용을 번역 과정에서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외신에서 미미하게 다뤄진 한국 관련 정보도 한국과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 KBS 월드뉴스에서는 더 부각시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해, 한국인 시청자들과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삭제 외에도 편역의 다른 전략들도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외국 선수들에 대한 CNN 기사의 경우, CNN에서는 한국인 선수와 관련된 내용을 미미한 비중으로 다룬 반면 KBS 월드뉴스에서는 한국인 선수와 관련된 내용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켜 번역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면으로 이해 가능한 정보를 삭제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두 명의 번역사가 “종종 삭제한다”와 “거의 삭제하지 않는다”로 엇갈리는 답변을 내놓았다. “거의 삭제하지 않는다”는 텍스트 분석 결과와 상반되는 답변인데, 추가 질문을 던진 결과 오히려 화면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외신에 없는 내용이더라도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다. 이는 TV 뉴스 번역에 개입하는 화면이라는 시각적 정보는 번역 과정에서 삭제 뿐 아니라 첨가와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화면이 주는 시각적 정보가 TV 뉴스 번역에서의 내용 첨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후속 연구에서 살펴 볼 계획이다.

어떠한 인터뷰를 번역 과정에서 삭제하는지에 관해서도 “기사 전체 흐름과 관련성이 낮은 인터뷰”와 “너무 구구절절하게 늘어지는 인터뷰”를 꼽았다. 후자의 경우는 메시지가 적은 내용을 비경제적으로 표현하는 인터뷰를 일컫는 것으로 사실상 “길이에 비해 정보성이 낮은 인터뷰”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4초 이하의 인터뷰는 KBS 월드뉴스를 제작할 때, 화면이 너무 빠르게 넘어가 아예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삭제한다고 답해, 텍스트 분석 결과와 일치했다.

6. 결론

본 논문은 인쇄매체와는 차별화되는 TV 뉴스 번역 전략 중 ‘삭제’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해 텍스트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텍스트 분석 결과 삭제되는 정보는 말장난이나 농담, 한국인에게 불필요한 내용, 화면으로 이해 가능한 내용, 그리고 인터뷰로 나타났다. 또한, 삭제되는 인터뷰는 4초 이하의 인터뷰, 리포트의 흐름과 관련성이 적은 인터뷰, 그리고 길이에 비해 정보성이 낮은 인터뷰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현직 TV 뉴스 번역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결과 역시 텍스트 분석 결과와 대부분 일치했고, 다만 화면으로 이해 가능한 정보는 삭제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화면 설명을 위해 ST에 없는 내용이 첨가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면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보 첨가와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다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뉴스 번역 전략을 TV 뉴스에까지 확대한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특히, 화면이 주는 시각적 정보, 구두 인터뷰, 구어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자의 말장난 등 TV 뉴스만의 특징을 삭제 전략과 연계해 논의했다는 점, 그리고 파편적으로 언급되던 TV 뉴스 번역의 특징들을 텍스트 분석으로 통해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추가적으로 TV 뉴스 번역사 인터뷰를 실시해 텍스트 분석 결과를 검증한 것은 TV 뉴스 번역 연구의 의미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TV 뉴스와 인쇄 매체 뉴스 번역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 방송국 보도국 내의 에스노그래피를 통한 TV 뉴스 번역 과정의 심층 연구, 또 저작권이 주어지지 않는 TV 뉴스 번역사들의 권익 연구 등은 미개척 분야이자 유망한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수정 (2011) 「중국 뉴스 매체의 한국뉴스 편역보도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 연구』 15(1): 1-27.
 강지혜 (2008) 「번역에서 인용의 문제: CNN.com 뉴스텍스트를 중심으로」, 『번

역학연구』 9(4): 7-40.

- 김구철 (1998) 『침삭지도 TV 뉴스 리포트』, 서울: LG상남언론재단.
- 김인규 (2010)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서울: KBS 한국방송.
- 김정기 (2001) 『방송프로그램 언어분석 연구』, 서울: 방송위원회.
- 상 남 (2008) 「한중 TV뉴스의 비교연구 -KBS <뉴스 9>과 CCTV <신문런보> 를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미경 (2011) 「도착언어 독자 지식을 고려한 뉴스번역 전략: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Linguistic Research』 28(2): 385-404.
- 이은숙 (2011) 「전문번역전략에 대한 연구 -TV 뉴스 번역을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 20: 199-218.
- 이지연 (2007) 「TV 방송 뉴스 번역의 특성: 격식성과 정중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263-282.
- _____ (2008) 「소리와 이미지의 번역 -TV 뉴스 번역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2): 193-251.
- 이창수 (2004) 「번역에서의 정보구조 변화: 방송뉴스 번역을 중심으로」,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6(1), 137-153.
- Bassnett, S. (2005) 'Bringing the News Back Home: Strategies of Acculturation and Foreignisation',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5(2): 120-130.
- Bielsa, E. (2007) 'Translation in Global News Agencies,' *Target* 19(1): 135-155.
- Chen, Y. M. (2011) 'Translator's Subjectivity and Its Constraints in News Trans-editing: A Perspective of Reception Aesthetics,' *Meta* 56(1): 119-144.
- Conway K. (2010) 'News Translation and Cultural Resist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3(3): 187-205.
- Pym, A. (2004) *The Moving Text*,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Orengo, A. (2009) 'Localising News: Translation and the "Global-national" Dichotomy,'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5(2): 168-187.
- Stetting, K. (1989) 'Transediting -A New term for coping with the grey area

between editing and translating' In G. Cale (ed), *Proceedings from the fourth Nordic conference for English studies*. University of Copenhagen, 1989. 371-382.

Tsai, C. (2005) 'Inside the Television Newsroom: An Insider's View of International News Translation in Taiwan,'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5(2): 145-153.

〈첨부 1〉

TV 뉴스 번역에서 정보 삭제의 양상에 관한 번역사 면접 조사

현재 KBS에서는 월드뉴스와 지구촌 뉴스를 전담하는 번역사팀을 꾸려 뉴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뉴스가 아닌 해외 각종 외신들 (NHK, CCTV, F2, ZDF, CNN, ABC)이 제공하는 완성된 리포트를 한국어 리포트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보의 삭제, 첨가, 재구성, 요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본 설문지에서는 TV 뉴스 번역에서 정보의 삭제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직 뉴스 번역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신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오로지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면접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번역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외신은 무엇입니까?
2. TV 뉴스 번역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3. KBS 월드뉴스의 리포트 길이는 1건당 1분 10초 내외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하고 계신 외신은 그 길이가 다양한데요. 담당 외신 리포트 하나의 길이는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 a. 1분 10초 내외로 KBS 월드뉴스 리포트 길이와 비슷.
 - b. 2분 - 3분 사이.
 - c. 3분 - 4분 사이.
 - d. 4분 - 5분 사이.
 - e. 5분 이상.
4. 담당하고 계신 외신 리포트의 길이가 KBS 월드 뉴스 리포트 길이보다 길다면, 번역 과정에서 일부 정보의 삭제는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번역 과정에서 주로 어떤 정보를 삭제하시는지요? (복수응답 가능)
- 1) 한국과의 관련성이 낮은 정보.
 - 2) 기자들의 말장난이나 농담
 - 4) 리포트 방송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발생성 정보.
 - 5) 화면으로 이해 가능한 정보.
 - 6) 음란, 잔인하거나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정보.
 - 7) 방송 시간대(오전 9:30, 정오)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8) 기타 ()
5. 4번의 질문에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4번 질문에 복수응답 하신 경우, 우선적으로 삭제하는 정보를 순서대로 배열해 주세요.
6. 담당하고 계신 외신 리포트에서 인터뷰가 여러 개 나오더라도 KBS 월드뉴스/지구촌 뉴스에서는 시간의 제약으로 그 중 하나만 선택해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인터뷰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7. 인쇄 매체와는 달리 TV 뉴스 번역에서는 그림이 제공하는 시각적 정보도 번역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림만으로도 이해 가능한 정보의 경우 번역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하신 적이 있습니까?
- a. 항상 삭제한다.
 - b. 종종 삭제한다.
 - c. 삭제한 적이 있다.
 - d. 거의 삭제하지 않는다.
 - e. 절대 삭제하지 않는다.
8. 국가별로 TV 뉴스에서 용인되는 음란성과 잔인성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정 국가에서 뉴스로 방송되었던 잔인한 내용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방송되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현재 담당하고 계신 외신과 KBS 월드뉴스/지구촌 뉴스를 비교할 때, 음란성과 잔인성에 대한 용인도가 어디가 더 높은가요?
- a. 담당하고 있는 외신. B. 비슷하다. c. KBS 월드뉴스/지구촌 뉴스
- ✓ 용인도: 용납하여 인정하는 정도. 즉, 음란성과 잔인성에 대한 용인도가 높은 경우, 음란, 혹은 잔인한 내용이 더 자유롭게 방송됨.
9. 8번 문제와 연결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담당하고 계신 외신과 KBS 월드뉴스/지구촌 뉴스가 잔인성, 음란성에 대해 서로 다른 용인도를 보일 경우,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시는지요?

[Abstract]

Omission Strategies in TV News Translation

Jeong, Nayoung

(Ewha Womans University)

TV news translators adopt various translation strategies such as omission, addition, reorganization and summarization to cater for the needs of target TV news audience. In this regard,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that TV news translation should be studied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editing, a coined term of translation and editing, which has long been used in the publishing field. This paper also adopted the concept of transediting to look into TV news translation strategies in depth.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d on omission strategies given that target texts are in many cases shorter than source texts in TV news translation. The text analysis showed TV news translators frequently omitted pun or jokes, irrelevant information for Korean viewers, and information that can easily be conveyed through images. They also omitted interviews which are too short, not very consistent with the flow of the report, and contain little information. In-depth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to see whether TV news translators consciously employ those omission strategies. In most parts, text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showed the same results. This paper is expected to open the discussion on TV news transediting, which has not been actively studied compared to translation in print journalism.

▶ Key Words: TV news translation, omission strategy, news trans-editing.

정나영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과정

skdud84@daum.net

관심 분야: TV 뉴스 번역, 미디어 번역, 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13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3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13일